

‘14년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 신뢰지수

(2014. 6. 12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. 종합 평가 결과

□ 미국 A.T Kearney는 최근 「‘14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신뢰지수* (2014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)」를 발표

* 총 26개국 소속 300개 글로벌 기업(연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)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해외직접투자(FDI) 매력도를 평가하여 상위 25위까지 선정

□ 해외직접투자 신뢰지수가 높은 상위 5개국으로 미국, 중국, 캐나다, 영국, 브라질이 선정

○ 미국은 ‘13년에 이어 ‘14년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, 중국이 2년 연속 2위를 기록

2. 중남미 국가 평가 내용

□ (중남미) 브라질, 멕시코, 칠레 3개국이 25위 안에 포함

○ 브라질은 최근 정치·경제 불안요소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2단계 하락(5위)

○ 멕시코는 전년 대비 3단계 하락(12위)

○ 칠레는 안정적 사회기반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(17위)

- (멕시코)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번째 높은 순위 기록
 - 설문응답자의 31%가 멕시코 투자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,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%에 불과
 - 응답자들은 멕시코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평가요소로 민간 부문(외국인포함)에 대한 에너지 개발·투자를 허용한 에너지 개혁법 및 방송통신개혁법 승인 등을 지목
 - A.T Kearney는 멕시코의 순위 하락에도 불구하고, 해외직접투자 지수지표 및 전망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

<참 고>

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전망에 대한 긍정적 vs. 부정적 응답비율

